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무더위는 입맛도 앗아가는 것 같아요. 그저 시원한 것만 찾게 되니까요. 어린 시절 어머니는 체력보강을 위해 미꾸라지를 잡아다 풋고추, 깻잎, 부추 등을 듬뿍 넣고 추어탕을 끓여주셨지요. 한소끔 땀을 흘리며 먹고 나면 주전부리 필요 없이 여름이 갔지요.

주전부리 :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군음식을 자꾸 먹음. 또는 그런 입버릇. (주전부리나 김밥 행상도 일정한 구역이 있어서 텃세 때문에 아이들이 깨지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황석영<어둠의 자식들>)

한소끔 : 1.국 따위가 한 번 거품 지어 끓어오르는 모양. 밥이 한소끔 끓다. 2.어떤 일이 한판 되게 벌어지는 모양. (점심때가 지나서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면 초저녁은 한소끔 되게 앓고는 식은땀을 베개가 펑하니 좔좔 흘리곤 하였다.)(염상섭<취우>)

섞박지 : 배추와 무, 오이를 절여 넓적하게 썬 다음, 여러 가지 고명에 젓국을 쳐서 한데 버무려 담은 뒤 조기젖 국물을 약간 부어서 익힌 김치. (하얀 쌀밥에 명탯국 담긴 반병두리며 섞박지 섞인 김장 김치에 동치미 서껀 몇 가지 산나물에 곤쟁이젓 찌개와 자반비웃까지 한 토막 놓여 있었으나, 한 저녁 치고는 진수성찬이었다.)(김성동<국수>)

부꾸미 : 찹쌀가루 · 밀가루 · 수숫가루 등을 반죽하여 번철에 지진 떡.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추악한 현실 속 무너져 가는 인간 존엄성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김동인 作 '감자'

이 소설은 1920년대 식민지 사회를 배경으로 평양 칠성문 밖 빈민굴에서 주인공 복녀가 자신의 환경에 의해 어떻게 타락해가다가 비참한 죽음에 이르는지 살펴보면서 읽어나가길 바래요. 이 소설을 읽다보면 프랑스 소설가 에밀 졸라의 <실험 소설론>(1880)에서 비롯된 자연주의 소설 이론의 핵심 요소인 환경결정론이 떠올라요. 인간의 행동이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쓴 단편 소설이요, 자연주의 소설로 하층민의 언어를 사용해 사실적이며 장면 중심의 사건 전개로 묘사적이죠.

작품의 인물을 살펴보면 복녀는 가난하지만 도덕적 기품을 가진 정직한 농가의 여인이지요. 자신을 둘러싼 가난한 환경의 영향으로 점차 타락하고 파멸해 가는 동적 인물이지요.

남편은 천성이 게으르고 무능하며 도덕성을 상실한 파렴치한 인물이에요. 왕 서방은 중국인 지주로 돈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배금주의자이며 호색한이죠.

복녀는 몰락한 선비후예로 유교적 가율로 자란 정직한 여인이었으나 무능하고 게으른 남편 때문에 날로 가난하게 된다. 복녀는 결국 악의 소굴인 평양 칠성문 밖 빈민굴로 남편과 함께 쫓겨나 살게 된다. 복녀가 빈민굴의 거지 행각을 하며 간신히 연명해 가고 있을 때, 당국에서 빈민구제 겸 솔밭의 송충이 잡는 일을 실시했다. 품팔이 나간 복녀는 어느 날 송충이 잡는 일의 감독관에게 몸을 팔고 많은 일당을 받는다. 이후 복녀는 쉽게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도덕적 타락에 빠져 거지들을 상대로도 매음한다. 가을에 왕서방네 밭에서 감자(고구마의 이북 방언)를 훔치러 갔다가 들키자 복녀는 왕서방에게 몸을 맡기게 된다. 왕서방은 수시로 복녀를 돈으로 산다. 남편도 관계를 묵인하여 왕서방의 정부로까지 전락하고 만다. 그런 와중에 왕서방이 어떤 처녀를 사서 혼인하자 복녀는 심한 질투심을 느낀다. 왕서방이 새장가 든 결혼식 날 밤, 복녀는 낫을 품고 신혼 방에 들어가 싸움을 벌이다 오히려 왕서방에게 낫을 빼앗기고 복녀는 낫에 찔려 살해된다. 복녀의 비참한 죽음으로 끝이 나자 왕서방은 복녀의 시체를 두고 남편과 한의사를 돈으로 매수한다. 복녀의 죽음은 뇌일혈로 처리되어지고 그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복녀를 공동묘지에 매장한다.

'감자'는 성적 착취 · 지배 상징 장면 마다 독특한 표현법 눈길

'감자'는 1925년 <조선문단> 4호에 발표되었지요. '감자'란 제목은 상징적인 표현이지요. 감자의 우의적 개념은 우리 농촌 사회의 궁핍과 도덕적 타락을 상징한 것이겠지요. 인간과 감자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주인공 복녀를 매개로 하여 보여준 것이지요. 또한 남성 세계의 성적 지배와 착취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우리나라에서 자연주의 소설의 대표작으로 평가된 작품이지요. 감자라는 작품은 긍정적인 현실보다는 부정적인 현실의 추악한 면을 들추어내고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고 있는 국면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답니다.

복녀가 거듭되는 가난에 따른 매춘 행위(사회적 요인)와 애욕의 질투(개인적 요인) 때문에 왕서방에 의해 비극적 죽음을 맞는 것은 이미 평양의 칠성문 밖 빈민굴, 도덕성과 윤리 의식이 부재하는 곳, 도둑질, 싸움, 살인, 간통, 매음 등 이 세상의 비극과 악의 근원지로 부정적 환경에서 예정된 운명이 아닐까요? 복녀의 죽음을 놓고 비정한 뒷거래를 하는 남편, 왕서방, 한의사 세 사람은 정말 인간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평안도 사투리와 하층 사회의 비속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장면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 독특한 표현법도 눈여겨보며 읽어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언니가 너무 부럽고 미워요.

저희 언니는 친구도 많고 말도 잘하는 편이라 인기가 아주 많아요. 전 내성적인 편이고 말도 없어요. 그래서 언니와 비교가 되고 저의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 언니랑 같이 있는 것이 자꾸 싫어져요. (ID:비교거부)

필요하다면 성격 계발해 보세요

언니와 성격이 다를 수 있지요. 저도 저희 형제들과 얼마나 다른데요. 그래서 우리 친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격이 반대면 생활하면서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맞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자꾸 비교하다 보면 언니의 성격은 다 좋아 보이고 자신은 초라해 보이고, 그렇답니다. 언니의 좋은 성격을 닮고 싶기도 하지만 그런 자신의 마음을 언니에게 털어 놓지도 못해서 어렵지요?
청소년기에 가장 힘들어하면서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자신의 성격 문제입니다. 불만으로 여기는 사항들이 대부분 성격이 내성적이라 친구들과 말을 잘 못하거나 가족들과도 말을 안 하고, 말하고 싶어도 막상 표현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나서 후회한다는 겁니다.
성격이란 개인이 자신과 환경에 대해서 지각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태어나서 약 5 · 6세가 되면 거의 완성이 되고 그 후 삶 속에서 엄청난 사건이나 사고 및 심각한 고통을 당하지 않고는 바뀌어 지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격을 바꾸려고 해도 잘되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향적인 성격은 더 긍정적인 내향적 성격으로 계발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향성이나 외향성 모두 각자의 모양과 맛, 빛깔이 있기에 좋다, 나쁘다 라는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독특성을 더욱 더 계발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들 중 내향적인 사람의 특성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받아들이고 필요하다면 계발해 나가는 것이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이버청소년상담실)

대한불교 조계종 만인회 약수사 만탑 불사 모연문

탑이란 누겁다생으로 갈고 닦아 이룬 소원성취의 결정체이며 옛부터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소원성취 만탑불사에 신남신녀 여러분의 수희동참을 앙망하옵니다.

일체중생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는 만탑불사는 역사이래 보기드문 대작 불사이며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다라니 기도를 매일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국내최초, 최다 만탑 불사에 두루 동참하시어 자손대대로 무량대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 나무마하반야 바라밀 –

◆ 동 참 금 : 1인 1탑 30만원(10회 분할가능)
◆ 구좌번호 : 농 협 525-01-176510 (예금주 : 약수사)
우체국 400051-01-007539 (예금주 : 조계종만인회)

◈ 만인회 회원도 모집합니다. (월회비 1만원)
◈ 회원 가입시 각종 혜택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문의시 만인회 책자 무료우송

◆ 동참문의 : 063)625-6831/010-9115-6831

약사여래기도도량
지리산 약수암
전북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산 183-2번지
※약수사 참배시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할 수 있습니다.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등록〉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강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였다.

대웅전 완공 기념 파격할인!!!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5만원(45%할인)
바로보인 선문염송 1 – 10권:105,000원(30%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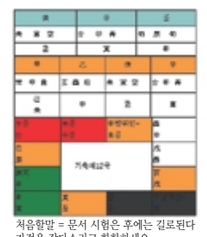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선가귀감 9월 서울 법회는
9월 2일(日)열립니다.
추석으로 인해 광주, 부산 법문은 1주일씩 당깁니다.
*서울선원 ☎ 02-522-0122(매월 첫째 일요일)오전 11시
*광주선원 ☎ 062-944-4088
선문염송/9월 9일 오후 2시
*부산선원 ☎ 051-545-2460
반야심경/9월 16일 오후 3시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육임 수강생 모집
육임 기초에서 백법 까지 실전에 임할수 있도록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사람에 일을 판단하는데는 옛부터 육임이 제일이라 했습니다.
720 국수에 담긴 비술만 터득하면 어떠한 점사도 가능한것이 육임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함께 학문을 배우실분들을 원합니다.
◆ 직강수강료 : 100만원



처음함말 = 문서 시험은 후에는 길로된다
가정을 잘다스리고 화합하세요
그래도 가정이 제일입니다 나를 구해주고 의지할 곳은 가정입니다

육임 동영상 CD판매 판매가 100만원
거리가 멀어서 직강을 들을수 없는 분들은 동영상 CD와 교제로 육임을 공부하실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하실 수 없어도 ID와 비밀번호만 치시면 고화질의 동영상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공부는 직강과 동일 합니다.

720 국수 CD 판매 판매가 100만원
육임에 진수인 "초사(왜 왔는가?, 하고자 하는 일은 될까 안될까?)"를 그날에 시간만으로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알수 있는 육임만에 비법을 그날 시간만 택하여 국수만 찾으면 모든 점사가 명확히 수록된 CD입니다.
육임에 용어와 시간간택법, 보는 요령등을 CD에 담아 같이 보내드리며 직강이 가능한 분들은 4회 수강권을 같이드립니다.

※직강신청+육임동영상+720국수CD 구매시 특별가(200만원) 적용

공념 학당
■ 상담문의 : 02)793-7333 ■ 홈페이지 : www.saju79.com
■ 사 무 실 : 서울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6-21-0762-969 (예금주 : 박옥자)